2004 BuchMesse Frankfurter

사진으로 본

2004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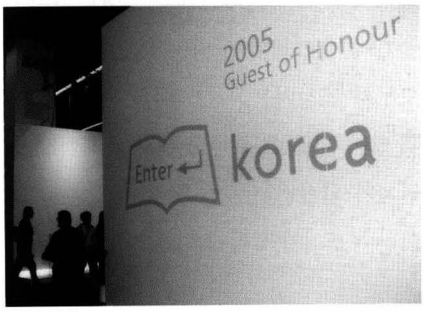
"Enter korea, Korea is coming"

취재·사진 신동섭 기자=프랑크푸르트

2004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하 도서전)이 2004년 10월 5일 저녁 개막식을 열고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열렸다. 이번 도서전은 지난해보다 7개국이 늘어난 110개국이 참가해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전시기간이 5일로 단축됐고, 일반관람객을 위해 금요일에 8시 30분까지 시간 연장을 없애는 대신, 관람 마감시간을 6시에서 6시 30분으로 조정했다.

이번 도서전에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는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2005년 주빈국 행사를 위한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한국관과 주빈국 홍보관은 예년에 비해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2004년 도서전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편집자 주〉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로고. IT 이미지를 풍기는 이 로고는 주빈국 행사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라, 접속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FRANKFURTER BUCHMESSE

• '한국이 오고 있다 korea is coming' 이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2005 주빈국 홍보관. 조형물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가 청주 근처의 절에서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흰색의 가벽을 설치하고 가벽 중앙에 복원한《직지 권상》1판,《직지 권하》5판 등 총 6판의 활자판을 일렬로 배치했다. 좌우 빈 공간에 주빈국 '한국으로의 초대와 직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부조처럼 넣었다.

•• 세계적인 건축가 헬무트 얀이 설계한 프랑크푸르트 메세 타워. 연필을 세워놓은 듯한 메세 타워는 프랑크푸르트의 상징이 되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지난 1976년부터 매년 주제를 선정해 이와 관련된 전시를 개최하다가 1987년 이후에는 이를 "주빈국" 개념으로 바꿔 특정 국가, 혹은 지역권의 서적 및 문화 전반을 집중 소개해 오고 있다.

••• 지난 6일(현지시간) 개막해 10일까지 계속된 '2004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지난 해보다 7개국이 늘어난 110개국이 참가해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열렸다. 6홀 중국 국가관과 8홀 영미관의 오리온 출판사 부스.

•••• 3홀 소설관의 한 부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관람객들.

••••• 〈미래를 향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정치 풍자화전' '아랍 서예전' '아랍 대표작가와 시인 번역 신간 전시회' '아랍 어린이 그림 전시회' '아랍 문화관련 토론회' 등 160여 개에 이르는 행사를 펼쳤다.

•••••• 전시장 곳곳에서 작가와의 만남이 열렸다. 세계 각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들과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작가들이 전시장에서 독자들을 만났다.